

반인종 차별 데이터 법안 – 웹 사이트

콘텐츠

새 소식

2022년 9월 23일 주 정부는 11명의 반인종 차별 데이터 위원회 위원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와 협력하여 공공 부문에서 제도적 인종 차별을 철폐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에 임명된 사람들을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더 잘 할 수 있는 기회

주 정부는 비씨주를 모두에게 더 공평하고 포용적이며 환영받는 주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지원하는 방법 중 하나는 주 정부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제도적 인종 차별과 여타의 불평등을 식별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도적 인종 차별은 원주민, 흑인 및 기타 인종 차별을 받는 공동체가 특정 정부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접근이 더 어렵거나, 접근 시 전반적인 비씨 주민보다 결과가 더 나쁠 때 발생합니다.

차별은 의도적인 것은 아닐 수 있으나, 우리가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이해하고 인식해야 하는 제도적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정부와 반인종 차별 이니셔티브 라크나 싱 정무차관은 비씨주의 인권 위원, 퍼스트 네이션 및 메이티 리더십, 인종 공동체 및 기타 비씨 주민들과 협력하여 인종, 민족, 신앙, 사회적 성별, 생물학적 성별, 능력, 소득 및 기타 사회 정체성 지표에 대한 인구 통계학적 정보의 보안성을 유지하면서 수집하고 안전하게 분석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올바른 방법으로 수집하고 사용하면 제도적 불평등이 있는 곳을 드러나도록 하여 차별, 불평등 및 서비스 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씨 주민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정보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법안이 필요한 이유

정부는 인구통계학적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관된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지 않으며 수집 방법, 공유 방법 및 접근 방식에 공백이 있습니다.

법안에 대해 알아보기

5 월 2 일, 주정부는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개선하고 시스템적인 인종차별주의 해결을 시작하기 위해 반인종차별주의 데이터법을 소개했습니다.

중요하고 결정적인 통계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정부 서비스가 공평하게 전달되고 비씨주 모든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지역사회가 실질적인 차이를 만드는 변화를 지지하기 위한 필수 정보에 대한 확보를 의미합니다.

공동체와의 대화

2021 년 9 월부터 2022 년 3 월까지 정부는 공동체 단체와 협력하여 인종 차별 문제를 공략하기 위하여, 안전한 방식으로 인종 기반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원주민 및 인종 차별을 받고 있는 공동체로부터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데이터 안전 보관

비씨주는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강력한 법률 및 보안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보호를 기반으로 원주민 및 인종 차별을 받는 공동체와 협력하여 사람들의 정보가 보호 및 보안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이 데이터의 수집 및 사용이 인종 차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공동체에 더 큰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수렴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살펴보십시오

5 개의 주제를 다룬 보고서에서 이 획기적인 참여의 결과를 보십시오.

[보고서 보기](#)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반인종 차별 데이터 법안은 2022 년 6 월 2 일에 법이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퍼스트 네이션 리더십 위원회와 메이티 네이션 비씨와 함께 공동 개발되었습니다. 인권위원회 및 다문화 자문위원회 또한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새로운 법은 주 정부가 일관되고 안전한 방법으로 제도적 인종 차별을 식별하고 제거하기 위한 인구통계학적 데이터를 수집, 사용 및 공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은 제도적 인종 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곳을 파악하고 보다 포괄적이고 공평한 주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 정부는 원주민 및 인종 차별을 받고 있는 공동체와 협력하여 어떤 통계 정보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공유되고 보호될 것인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세부 정보 보기](#)

지원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레질리언스 비씨(ResilienceBC)는 증오 범죄 및 사건에 대응하고 보고하는 방법에 대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레질리언스 비씨\(ResilienceBC\)방문](#)

법안에 대해 알아보기

2022 년 5 월 2 일, [정부는 반인종 차별 데이터법을 도입](#)했는데, 이 새로운 법안은 다음을 목표로 합니다.

- 사람들의 프로그램 접근을 막는 장벽 허물기

- 인종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과도하게 표적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서비스 개선하기.

이 법안은 2022 년 6 월 2 일에 법이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원주민, 인종 차별을 받고 있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비씨주 인권 위원, 퍼스트 네이션즈 리더십 위원회, 비씨주 원주민 우정 센터, 메이티 네이션 비씨와 같은 핵심 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13,000 명이 넘는 비씨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전달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네가지 핵심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비씨주에 있는 퍼스트 네이션과 메이티 공동체의 고유한 정체성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원주민과의 지속적인 협력.
2. 법안 시행에 있어 인종 차별을 받고 있는 공동체와 협력. 이는 데이터 수집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정부와 협력하기 위한 주 반인종 차별 데이터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포함됩니다.
3. 원주민과 인종 차별을 받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는 동시에 투명성과 책임감 증진.
4. 정부는 매년 데이터를 공개하고 해당 법률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도록 요구.

주정부는 이 법안을 시행함에 따라 원주민 및 인종 차별을 받고 있는 공동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법안이 필요한 이유

정부 정책과 프로그램 등 모든 곳에 제도적 인종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는 바뀌어야 합니다. 인종, 민족, 믿음 및 다른 요소들과 관련된 데이터는 원주민 및 인종 차별을 받는 공동체가 정부 서비스에서 제도적 인종 차별을 겪는 곳과 방법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현재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일관성이 없습니다.

법안은 이러한 각종 정보가 일관되고 문화적으로 안전한 방식으로 수집, 사용 및 공개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 정보를 통해 정부 시스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면에서 인종 차별이 발생하는 곳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포용적이고 공평한 주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원주민 및 인종 차별을 받는 공동체는 오랫동안 인종 기반 데이터의 수집, 사용 및 접근성을 개선하도록 정부에 요청해 왔습니다. 이들은 교육, 의료, 주택 및 치안과 같은 공공 서비스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데이터를 더 잘 활용하여 제도적 인종 차별을 식별하고 해결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가 문화적으로 안전하고 돕고자 하는 해당 공동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수집, 저장, 사용되기 위해서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또한 보고서, 비씨주의 세분화된 인구통계 데이터 수집: 할머니의 관점(The Grandmother Perspective)은 기존의 제도적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공동체와 협력하여 개인 정보의 수집 및 사용에 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공동체 단체와 협력하여 원주민 및 인종 차별을 받은 지도자 및 공동체 구성원과 직접 대화를 나눴으며, 앞으로도 단계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제도적 인종 차별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법안을 도입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확고히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원주민의 자주 통치권을 보장하기 원합니다.

이 법안은 비씨주 정부와 원주민 및 인종 차별을 받는 공동체가 행동과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더

제도적 인종 차별이란?

제도적 인종 차별은 서비스, 시스템 및 구조에 구축된 불평등을 통해 발생하며, 종종 인종에 따른 숨겨진 편견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때 발생합니다. 많은 원주민과 인종 차별을 받는 공동체에서는 교육, 의료, 아동 복지 및 치안과 같은 공공 서비스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성, 열악한 결과 및

나은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데이터의 수집 및 사용은 시스템적 불평등을 가시화하고 장벽을 줄이며 차별, 불평등 및 서비스의 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가 안전하게 보장되는 일관된 방식으로 수집, 저장 및 사용되어 사람들의 정보를 보호하고 보안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중 하나입니다.

이 법안에 따라 정부는 수집된 모든 데이터가 안전하게 저장되도록 할 것입니다. 정보의 자유 및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른 모든 개인 정보 및 보안 보호는 이 법안에 따라 수집되고 사용되는 정보에 적용됩니다.

데이터를 사용하여 제도적 인종 차별 식별을 시작하기 위해, 정부는 비씨주 데이터 혁신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파이브 세이프(Five Safes)라 불리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사생활 보안 모델을 사용할 것입니다.

파이브 세이프(Five Safes) 모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될 위험을 줄입니다:

- 데이터상 개인 식별 정보 제거
- 보안 기술을 통한 데이터 안전 통합
- 명확한 공공의 이익이 있고 개인 및 공동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프로젝트만 승인
- 승인된 개인만 접근 허용
- 연구 결과에 대한 추가적 사생활 보호 보장

데이터 혁신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

[데이터 혁신 프로그램에 대해 자주 하는 질문](#)

공동체와의 대화

이 참여 과정은 공동체와 함께, 공동체를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BC 인권위원회 보고서,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인구 통계 데이터 수집: 할머니의 관점(The Grandmother Perspective)을 포함한 원주민 리더십 및 인종 차별을 받는 공동체 전문가의 초기 피드백은 공동체의 요구가 의미 있게 해결될 수 있도록 법안 개발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참여 과정은 원주민 리더십과 인종 차별을 받는 공동체 조직을 과정의 선두에 두었으며, 공동체 구성원은 이 조직들과 함께 데이터의 수집, 사용 및 공개와 관련된 우려 사항, 요구 사항 및 우선순위를 그들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아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 정체성에 대한 견해: 비씨 주민은 어떻게 자신을 식별하거나 나타내는 것을 선호하는가.
- 생생한 경험: 정부 기관과 개인 정보를 공유한 사람들의 이전 경험. 이로써 각기 다른 상황을 위한 정보 공유에 대한 비씨 주민의 편안함 정도를 이해하는데 도움 (예: 정보 수집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 또는 보건, 교육 또는 법제도 등 같은 공공 서비스)
- 데이터 사용에 대한 관점: 정부가 인종적 형평성 개선에 대한 노력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개인의 데이터를 사용하기를 원하는가.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세 가지 참여 흐름을 통해 사람들과 공동체가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되었습니다.

1. 원주민 참여
2. 공동체의 주도적 참여
3. 온라인 공개 설문조사

이 의견은 공동체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러한 통계 정보가 수집되어 제도적 인종 차별에 대처하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2,900명 이상이 설문조사에 응답했으며 거의 10,000명이 원주민, 흑인 및 유색인종 (IBPOC)을 대표하는 공동체 조직이 개최한 공동체 참여 세션에 참여했습니다.

1. 원주민 참여

2019년 11월에 원주민 권리에 관한 선언이 통과된 후, 비씨주 정부가 도입하기 시작한 중요한 새로운 법안으로서 원주민과의 의미 있는 교류는 계속적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원주민 참여 전문가(퀸테센셜 연구 그룹), 비씨주 원주민 우정센터협회(BCAAFC), 메이티 네이션 브리티시 컬럼비아(MNBC)는 각각의 원주민 공동체 구성원 및 개별 퍼스트 네이션과 함께 직접 세션을 이끌기 위한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주 정부는 이 법안이 원주민의 데이터 자치권을 보장하도록 퍼스트 네이션 지도자 협의회(FNLC), BCAAFC 및 MNBC를 포함한 원주민 지도자 단체와 직접 협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FNLC는 법안 작성에 정부와 협력하도록 원주민 데이터 관리 전문가를 임명했습니다.

또한 이 법안에 대한 정보는 비씨주 총회, 비씨주 퍼스트 네이션 총회, 비씨주 퍼스트 네이션 정상 및 비씨주 인디언 추장 연합의 총회에서 퍼스트 네이션 추장들에게 여러 단계로 제시되었습니다.

2022 년 초, 퍼스트 네이션은 기술 브리핑에 참석하여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듣고 피드백을 공유했습니다.

2. 공동체의 주도적 참여

주 정부는 인종 차별을 받는 공동체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들과 직접 참여 세션을 주최하고자 하는 적격 공동체 조직 및 단체에 가능한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2021 년 11 월부터 2022 년 1 월 말까지, 주 전역에서 약 70 개 조직이 참여 세션을 개최했으며, 직접 및 가상으로 425 회의 회의를 개최하고 약 10,000 명에 달하는 인원이 참여하였습니다.

인종 차별을 받는 공동체 구성원으로부터 데이터 수집, 사용 및 공개에 대한 개인적 경험과 우려에 대해 직접 듣는 것은 공동체의 요구를 이해하고 데이터 법안을 반영토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3. 온라인 공개 참여 설문조사

주 전역의 IBPOC 공동체에서 온 광범위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주 정부는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조사는 2022 년 9 월부터 1 월 31 일까지 여러 언어로 진행되었습니다. 약 3,000 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이 조사는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의 경험 및 정체성과 인종에 대한 정보 제공에 대한 개인의 실제 경험을 이해하고자 고안되었습니다.

청취 내용 보고서

5 개의 주제 보고서에서 이 획기적인 참여의 결과를 보십시오.

비씨주 원주민 우정 센터 협의회 참여 보고서

원로회의, 동료 검토 위원회 및 주 원주민 청년 위원회 회원들을 포함한 총 36 명의 참석자들이 두 세션에 걸쳐 참석하였습니다.

공동체의 주도적 참여 보고서

주 전역의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반인종 차별 데이터 참여 세션을 주최하기 위해 대략 70 개의 원주민 및 인종 차별을 받는 공동체의 조직이 비씨주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퍼스트 네이션즈 참여 보고서

정부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비씨주 퍼스트 네이션즈에 참여했습니다. 참여의 목적은 비씨주 퍼스트 네이션즈 참가자가 반인종 차별 데이터 법안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메이티 네이션 비씨 참여 보고서

메이티 네이션 브리티시 컬럼비아(MNBC)는 비씨주 정부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원주민 특유의 인종 차별에 대처하라는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당면한 반인종 차별 데이터 법안에 대한 공동체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온라인 참여 보고서

2021년 9월 9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정부는 반인종 차별 데이터 법안을 지지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는 정부 서비스를 사용할 때 신원 및 민족 데이터를 제공한 경험에 대한 응답을 수집했습니다.

[전체 리포트\(영어\)](#)

위원회 소개 - 반인종 차별 데이터 위원회

2022년 9월 23일, 주 정부는 반인종 차별 데이터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을 발표했습니다.

위원회 위원은 BC주 전역에서 인종 차별을 받는 공동체와 지리적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위원회는 주 정부와 협력하여 데이터를 안전하게 수집하고 사용하는 지침을 개발한 다음 공공 부문의 제도적 인종 차별을 식별하고 해소할 것입니다.

위원회에 부여된 과제는 데이터 지침 및 표준의 개발을 지원하고, 정부의 연구 우선순위 결정을 도우며, 연간 통계 발표 전에 자료를 검토하여 공동체의 피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프랜시스 위원장은 "이 변혁적인 반인종 차별 데이터법은 BC주가 인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번영할 수 있는 주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반인종 차별 데이터 위원회는 이러한 열망을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위원회는 원주민 및 인종 차별 피해 공동체들의 대표성이 보장되도록 구성되었으며 공공 부문의 제도적인 인종 차별 및 서비스 격차 해소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여기에는 주 정부와 협력하면서 핵심 연구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 공동체들과 협력하고, 그들의 관점을 포용하며, 문화적 안전을 유지하는 지속적 절차가 수반된다. 주된 초점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니터링하여 공공 서비스에 존재하는 인종 간 형평성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위원회가 하는 일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https://news.gov.bc.ca/27486> 을 보십시오.

위원회 위원

June Francis(위원장) - Co-Laboratorio(CoLab Advantage Ltd.) 공동 설립자이자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 총장의 반인종 차별 대응 특별 고문

인종 차별 피해 그룹에 대한 형평성과 다양성, 포용성을 옹호한다. Hogan's Alley Society 협회장이며, 이 협회는 주택 제공과 건축 공간, 프로그래밍으로 아프리카계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안녕 증진을 사명으로 한다. 또한, SFU 디아스포라 연구소 소장이기도 하다. 이 연구소의 사명은 다문화 및 디아스포라 공동체와 관련한 학술 연구, 정책, 관행과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포용적인 이니셔티브를 구축하는 역할 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것이다. 기업가로서 CoLab 을 통해 다양한 고객층과 협력하여 직장 문화와 공급망, 정책, 프로그램, 파트너십, 서비스 설계에서 원주민, 흑인, 그 외 인종 차별을 받는 그룹의 참여를 저해하는 구조적 장벽을 감사하고 해결하려고 한다.

Shirley Chau - UBC 오카나간 캠퍼스 사회사업 부교수

UBC 총장의 반인종 차별 및 포용성 진흥 대책 위원회 공동 위원장이며 전 캐나다 사회복지 교육 협회 인종/민족/문화 문제 연맹의 의장과 공동 의장을 역임했다. 컬로나의 인종 차별 및 증오에 반대하는 조직 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으며, 원주민, 성별, 연령, 인종 언어학, 민족, 종교, 장애에 기반한 인종 차별 및 교차 차별과 관련한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Donald Corrigan – 메이티 네이션 BC 문화적 안녕 관리자

메이티 네이션 BC 에서 In Plain Sight 보고서, 실종 살해 원주민 여성/소녀 보고서, 진실 화해 위원회 행동 촉구 사항 등 다양한 문제에 관하여 의료 업계와 연락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1976 년부터 환경 공중 보건 분야에서 일했으며 COVID-19 대유행 기간 동안 BC 주 내륙의 여러 위원회에서 근무하면서 COVID 클리닉 접근성 및 차별/인종 차별 사건 문제를 다루었다.

Marion Erickson – 보건 예술 연구원 연구 관리자

Nak'azdli 공동체 소속 Dakelh 여성이며 Lhts'umusyoo(비버) 클랜의 구성원이다. 톰슨 리버스 대학에서 교육 석사 학위 과정을 이수 중이며 노던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에서 공공 행정 및 지역 사회 개발 학사 학위를 받았다. BC 보건 규제 원주민 학생 자문단에서 봉사하고 있으며 Nak'azdli 부족 대상 신뢰 개발 위원회와 프린스조지시 학생 필요 위원회에서 봉사했다.

Daljit Gill-Badesha –BCIT 강사 겸 SFU 객원 강사

비영리 및 공공 부문에서 25 년 이상 리더십 고위직을 역임했으며 어린이, 청소년, 노인, 이민자 및 난민 정착, 접근성 및 포용성 포트폴리오를 위한 경영 관리, 연구, 지식 동원, 정책 개발 분야의 전문 지식을 제공한다. 수상 경력의 장기 지역 사회 계획을 위한 대규모 이니셔티브 및 전략을 개발했으며 지방 정부 내에서 데이터 수집 및 보고 접근성을 더 확대하고 인종 차별 및 증오 관련 데이터에 대한 책임성 조치를 추가하는 정책 변경을 주도했다.

Jessica Guss, BC 환자 안전 품질 위원회 원주민 건강 전략 이니셔티브 책임자

원주민 보건과 안녕 분야에서의 7 년 경력 등 경영 및 관리 분야에서 20 년 이상의 경력을 지니고 있다. Haida 와 Xaxli', Xwisten, Squamish 네이션과 유럽계 혼혈을 포함하는 혼합 조상을 가지고 있다.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표준, 프로세스 개발, 분석 분야에서의 능력을 강화하여 반인종 차별 전략 및 목표와 맞물리는 영역을 발전시켜왔다.

Ellen Kim – 형평성 및 포용성 컨설턴트

원래 한국 출신이며 반인종 차별에 중점을 두고 정부, 기업, 비영리 단체와 협력해왔다. 반아시아인 인종 차별과 그 영향에 관한 공동체 기반 데이터를 수집, 분석, 추적, 공유하는 풀뿌리 아시아 여성 단체를 공동으로 이끌고 있다. 이에 앞선 10 년 동안은 지역 사회 발전과 최일선 사회 봉사 분야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글로벌 공동체들과 함께 일했다.

Zareen Naqvi –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 기관 연구 기획 디렉터

보스턴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세계 은행에서 학술 및 국제 개발 전문가로 근무했다. SFU 에서 형평성, 다양성, 포용성 데이터 작업 그룹을 이끌고 데이터 거버넌스 위원회 및 그 외 관련 프로젝트의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다. 데이터 접근성을 개선하여 취약 그룹이 공공 서비스 및 고등 교육 기관에서 잘 대표될 수 있게 하는 데 열정이 있다.

Smith Oduro-Marfo – BC 주 흑인 보고서 수석 저자이자 연구원

빅토리아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2016 년부터 개인 정보 보호, 데이터 보호, 감시, 식별 시스템 문제가 학문적 관심사였다. BC 주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2022 년 2 월 발표된 'BC 주

흑인' 보고서의 수석 저자이자 연구원이다. BC 폭력 증식 협회의 반인종 차별 및 증오 대응 프로그램 자문 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광역 빅토리아 경찰 다양성 자문 위원회의 일원이다.

Jacqueline Quinless - Quintessential Research Group 최고 경영자

사회학자, BIPOC 연구원이자 아일랜드/영국/인도 혼혈인으로, 성별 기반 분석 체제를 이용하여 20년 이상 원주민 공동체에서 광범위하게 일했다. 2013년에 캐나다 원주민을 위한 인간 복지를 발전시킨 공동체 기반 연구로 캐나다 사회학회와 앵거스 리드 재단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데이터 지표 및 측정 도구의 개요를 비롯한 연구 역량 분야에서 퍼스트 네이션 공동체를 위하여 일했다.

Sukhi Sandhu - Wake Up Surrey 공동 설립자, 터프츠 대학(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전공) 대학원생

지역 사회 활동가이자 남아시아 청소년 관련 갱 폭력 및 표적 총격 증가에 대응하여 2018년에 결성된 풀뿌리 공동체 조직인 Wake Up Surrey의 창립 멤버이다. 각급 정부, 경찰 당국, 지역 사회 이해관계자, 교육자, 정신 건강 전문가, 피해자 가족 등과의 150여 개 회의에 참여하여 단체의 지원 활동을 주도해왔다. 또한, 글로벌 스포츠 관리 분야에서도 다년간의 경력이 있다.

다음 단계

제도적 인종 차별은 정부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만연하며, 우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밟게 됩니다:

2022년 5월 2일, 원주민 및 인종 차별을 받는 공동체와 공동 개발한 반인종 차별 데이터 법안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2022년 6월 2일에 법이 되었습니다.

- 이 법안은 두 가지 중요한 목표를 다루게 됩니다:
 - 원주민 및 인종 차별을 받는 공동체와의 신뢰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수집 도입
 - 제도적 인종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 정보의 수집, 사용 및 공개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을 수립

둘째, 이 법안은 인구통계학적 데이터의 일관되고 안전한 수집, 사용 및 공개를 통해 제도적 인종 차별이 일어나는 곳을 파악하고, 보다 포괄적이고 공평한 주를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새로운 법안에 대한 강력하고 문화적으로 안전한 실행안을 개발하기 위해 공동체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 이 법안은 인종 차별에 대처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및 사용에 대한 많은 단계 중 첫 단계입니다. 법안 승인 후 각 단계에서 참여할 원주민 및 인종 차별을 받는 공동체와 함께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 이 계획은 기존 정책 및 프로그램에 따라 확장되며, 유익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지침, 교육, 도구 및 활동을 개발할 것입니다.
- 또한 비씨주 정부는 *원주민의 권리에 대한 선언*에 따라 원주민 데이터 관리 체계와 데이터

반인종 차별 데이터 법안 소개

2022 년 봄

원주민 및 인종 차별을 받는 공동체와 공동 개발

시행 계획 개발

공동체와 협력하여 시행 계획을 수립

데이터 관리 체계 및 데이터 우선순위 지원

원주민과 협력하여 원주민 데이터 관리 체계 및 데이터 우선순위 지원

우선 순위를 지원하기 위해 원주민과 협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어떻게 안전 및 보안을 유지할 것인지, 어떻게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할 것인지, 누가 어떤 상황에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원주민, 흑인 및 유색인종(IBPOC)과 협력하여 결정됩니다.

비씨주 인권 위원실과 정보 및 개인 정보 보호 국장실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공동체의 지속적인 의견과 참여는 의도하지 않은 개인 및 공동체의 잠재적인 피해를 식별하고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법에 따른 주요 책무는 새로운 BC 주 반인종 차별 데이터 위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위원회는 공동체 구성원들을 모아 정부와 협력하여 연구의 우선순위를 개발하고 공공 부문의 제도적 인종 차별을 식별하고 해소할 데이터 수집 및 사용 방법을 결정하여 BC 주민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선할 것입니다. 이 위원회의 구성원은 2022 년 9 월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법안을 추진하면서 모든 단계에서 원주민 및 인종 차별을 받는 공동체와 계속 관계를 맺고 소통할 것입니다. 이 작업이 더 많은 편견과 차별을 낳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진행하는 동시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데이터의 힘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